

검단·석남·송도연장선 등 광역철도망 확장 사업 추진

인천시, 주요 사업 본격화 '적기개통' 방침

인천시가 올해 검단·석남·송도연장선 사업 등을 본격화하며 광역철도망 확장에 앞장선다.

최근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2018 주요업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송도연장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선 사업을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시철도 건설'을 목표로, 철저한 안전관리로 공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도시철도 적기 건설을 위한 행정지원을 통해 교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검단연장 사업은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한다.

검단연장 사업은 계양역~검단신도시 구간을 6.9km 연장하고, 정거장 3개소 구축·전동차 1편성 8량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7277억원으로, 올해 165억1700만원이 배정·집행된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중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해 하반기부터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해,

오는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석남연장 사업은 올 연말까지 토목 공사를 준공,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차량능형시험·시스템연동시험 등 공종별시험의 기틀을 마련한다.

총사업비 3778억8900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2020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석남연장선이 구축되면 부평구청~석남동 구간의 환승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지하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도연장 사업 또한 토목공사와 건축·기전 분야 공사가 본격화된다.

이 사업은 국제업무지구역~송도랜드마크 시티 구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앞서 추진된 동막~송도 연장 사업의 2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총사업비 8077억100만원 중 올해 1814억1600만원이 배정돼 관련 분야 발주가 대거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국 기자

2027년까지 전 노선 LTE-R 도입...1.1조 투입

사업대상, 소사~원시선·서해선·중앙선·장항선·대곡~소사선 등

국토부가 2027년까지 전체 철도 노선에 LTE-R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R&D를 통해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통신시스템(LTE-R)의 검증 완료하고, 일반·고속철도 전 노선에 설치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LTE-R 구축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속·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4세대 통신기술인 LTE가 철도 분야에 적용되면, 현재 음성통신 위주의 철도통신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통신시스템은 안전하고 원활한 철도운행을 위한 관제사·기관사·승무원 등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일반철도는 지난 1969년에 최초 도입된 VHF 방식의 통신시스템을, 고속철도는 TRS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음성·저용량 데이터 전송 기능만 지원해 변화한 철도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VHF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통화품질이 낮고 통신이 단절되는 음영지역이 존재하는 등 일부 구간에서 안정적인 통신운영이 제한돼 사용자 불편을 초래, 유지관리 비용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첨단화·지능화가 진행되고 있는 철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700Mhz 대역 통합공공망 주파수를 배정받아 LTE-R을 개발, 앞으로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사업대상은 2018년 이후 개통되는 신규 노선과 개량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노선으로, 소사~원시선, 서해선, 중앙선, 장항선, 대곡~소사선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통신시스템이 LTE-R로 통합돼 노선 간 연계운영이 용이해지고, 약 15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향후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 철도사고 등 재난상황발생 시 LTE-R을 재난통신망으로 활용하는 등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철도통신시스템은 통신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음성통신만 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왔다"며 "하지만 고속에서 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LTE-R이 구축되면 무선기반 열차제어 서비스가 제공됨은 물론, 철도안전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국 기자

안전문화 확산·무재해 달성 '다짐'

철도공 수도권본부, 안전결의대회·협력사 간담회

철도공단 수도권본부가 건설 현장의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본부장 이현정)는 10일 본부와 협력사 직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결의대회 및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

다. 이날 안전결의대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안전에 취약한 동절기 임을 감안, 철도건설 현장근로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철도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없는 완벽한 시공과 적기 개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을 다짐했다.

또 협력사 간담회에서 본부는 건설 현장과의 상생협력력을 체결하고,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양방향 소통을 통해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기로 약속했다.

이현정 본부장은 "수도권 건설현장은 항상 위험요인이 많은 도심지 골짜기와 열차운행선 인접현장이 대부분이라 안전에 취약한 개소가 많다"며 "올해 무재해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신뢰받는 철도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광국 기자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2018년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결의대회 및 협력사 간담회'에서 본부와 협력사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부, 도시철도용 KRTCS 도입한다

서울·부산지하철 등 500억 투입...국내 신호통신 국산화 '앞장'

국토부가 도시철도용 KRTCS 도입을 추진한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용 국산 열차제어시스템(KRTCS) 1단계 도입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번 도입 대상은 시설 노후화로 개량사업을 앞둔 노선으로,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 부산지하철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사업비 규모는 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선 국토부가 500억원을 투입해 물꼬를 트고, 추가 필요 예산은 지자체·운영사에서 지원하는 형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KRTCS 1단계 사업에 나선 배경에는 국내 철도 신호통신 분야의 외산화 심화현상이 있다.

국토부는 국산 시스템의 부재로 국내 철도 산업에서 외산 시스템의 의존도가 높아져 사업 추진은 물론, 향후 운영·유지보수 분야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일단 초기 도입 비용이 높을뿐더러, 원천 기술이 없어 시스템 유지보수, 개량에도 많은 비용이 투입된 탓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산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을 추진, 지난 2014년 개발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기술을 개발한 지 3년여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안정성·실적 부재 등을 이유로 국내 사업자들은 시스템 도입을 꺼려하는 등 실제로 KRTCS 도입을 통해 국내 시스템을 국산화 하겠다던 국토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다.

업계에선 국토부의 방침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산 시스템 도입으로 실질적인 신호통신

분야의 국산화를 이끄는 동시에, '기술개발-상용화'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일차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거론되는 서울·부산지하철의 경우 그간 시스템 국산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는 점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엔 앞서 추진된 신림선 경전철 사업에서도 시스템 국산화를 이유로 KRTCS 1단계 도입을 유도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향후 타 지자체·운영사에서 KRTCS 도입을 추진하는 데도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개량을 앞둔 노선이 많은 만큼 신호통신 분야 시장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김광국 기자 kimgg@



대구도시철도 '리뉴얼 20' 비전 역장간담회

대구도시철도가 '리뉴얼 20'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역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환)는 9일 공사 본관에서 1·2·3호선 현장관리자인 역장들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공사의 새로운 비전 달성과 경영전략인 '리뉴얼 20'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뉴얼 20은 공사가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노후화된 설비를 개량하고, 서비스 제고 등으로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내세운 비전이다.



KUMKANG ENERTECH

LED LIGHTING

"당신의 빛이 되겠습니다"

1999년에 설립한 종합 조명기구 제조업체로 체계적인 공장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 과정이 본사로 집중된다는 이유로 생산라인 및 검사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크고 실용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제공하고자 선진 조명 기술의 습득과 제품의 연구 개발 및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LED조명으로의 빠른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LED 등 핵심 기술들은 직접 개발 생산하고 더 나아가 LED 조명 조명 제품 생산, IoT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제품개발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강에너지는 "당신의 빛이 되겠습니다" 라는 목표로 단순히 불을 밝히는 등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을 서비스 하여 어두운 곳까지 밝힌다는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빈번히 생각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변화의 중심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ENERGY ECONOMIZE TYPE LIGHTING FIXTURE

(주)금강에너지 "조명형 우수제품"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구

실용의 우수성과 조광효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조명도구에 필요한 부품의 국산화를 위하여 국산 부품의 확보를 노력합니다.

다양한 조명 제품 사용 시 LED조명에 친환경에 불발현을 조광 효과를 확보하여 30%~40%의 전력 절감, 100%의 성능과 사용예로 LED조명 특성을 유지하여 밝히는 수명연장을 기대 가능합니다.



KUMKANG ENERTECH

LED LIGHTING SYSTEM